

담 화 문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2019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띠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더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슈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건, 사고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각 계 각 층의 국민들이 고통 받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불법 자가용 카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에 근거하여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하고, 그 대가로 기름값 정도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이지만, 카카오 카풀은 유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알선하여 수수료 20%를 챙기는 것으로 공유 경제가 아니고 소상공인에 불과한 택시종사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약탈경제이며, 4차 산업혁명과는 전혀 무관한 대기업 배불리기 정책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 죽이기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불법 자가용 카풀 반대” 집회를 2018년 10월 4일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2018.12.11. 일에는 “불법 자가용 카풀 반대”와 “택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법인택시 최우기 열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하였으며, 1월10일 개인택시 임정남 열사가 분신사망 하는 참담한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가 진정 이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이전에 당장 카카오의 카풀 영업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법상 카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편파적 무능 무책임한 발언으로 카카오 카풀을 인정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카카오 공화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30만 택시 종사자들은 대동단결하여, 자가용 불법 카풀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총력투쟁으로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인천개인택시조합은 30만 택시 사업자를 배신하고 카풀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카카오를 강력히 규탄하며 “카카오 콜” 거부운동을 전개하여 카카오의 오판을 반성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당 조합은 카카오 거부운동과 함께

택시 4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T1 모빌리티 콜과 병행하여 12월26일 이사, 대의원회에서 카카오 콜을 대안으로 “럭키7 콜” 을 조합 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조합과 (주)세븐 콜과의 제휴(공동운영)
 - 조합콜 추진배경: 16개 시·도 조합 중에서 인천조합에서만 콜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기계나 통신 약정 등 일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핸드폰 앱(APP)을 이용하는 조합콜 정립
 - 조합콜 활성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인천개인택시 조합 이사장이 “럭키7 콜” 에 공동대표가 되고 등기 이사로 1인이 참여하여, 조합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
 - 조합은 “럭키7 콜” 운영에 회원확보(조합원)로 참여하고, 기존 세븐콜은 자본참여로 경영의 모든 책임은 세븐콜이 지기로 함
 - 공동운영 이익금 발생 시 조합에 20%로 배분하기로 함
2. 향후 다양한 택시개발 접목 : 실버택시, 핑크택시, 공항 전용택시
관광택시, 임대택시 등
3. 회비: 18,000원(10콜 이하 받을 시 회비 없음)
(※ 인천시 가맹사업 콜비 지원 10콜이상 18,000원, 20콜이상 23,000원, 30콜이상 28,000원)

본 사업은 기존의 인천시 콜비 예산을 받는 가맹사업자(세븐콜)와 우리조합이 공동 운영 함으로써 그 동안 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대적 트렌드인 앱(APP)콜을 과감히 접목함으로써 침체되었던 인천콜택시의 시장에 활력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사업 권 보호, 수익금 증대 및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카오 콜” 의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금까지 “카카오 콜” 의 행태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콜만이 우리의 사업권을 지킬 수 있고 조합에서 운영하게 되는 “럭키7 콜” 만이 우리의 살길이며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카카오 콜” 을 과감히 끊고 조합콜(럭키7 콜)로 전환하여, 빠른 시일 내 조합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9년 기해(己亥)년 새해 안전운전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2019. 1. 17.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 승 일

